민주 전남지사 경선 '체육관 경선' 논란

박준영 "조직동원·금품살포 폐해 우려"

주승용 이석형 "정당 후보 당원이 뽑는게 원칙"

민주당이 전남지사 후보경선에 여론조사와 함께 도입하기로 한 '체육관 경선'이 경선방식 최종 확정을 앞두고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금품·동원 선거 폐해'를 주장하며 '체육관 경선'에 대한 강력한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다. 주승용 의원과 이석형 예비후보는 '체육관 경선'을 환영하며, 박 지사를 협공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심위가 의결한 도민 여론조사 50%+당원 직접 투표 50%를 전남지사 경선방식으로 최종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당원 선거인단은 우대당원 50%+일반당원 50%로 구성되며, 6천여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체육관 경선 폐해 많다"=3선에 도전하는 박 지사는 21일 중앙당에 보낸 '전남도당 당원 조작에 대한 조사 및 지사 경선 방법에 대한 건의문'에서 "시·군 지역위원회와 전남도당이 가진 당원명부가 다르게 돼 있는 등 당원명부 조작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지사 측은 "이러한 부정확한 당원명부로 공정한 경선을 치를 수 없는 일"이라며 중앙당의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또 "지난 2002년 광주시장 경선과 2004년 일부 지역 국회의원 경선 등에서 체육관 경선의 폐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당원들이 모여 특정 장소에서 직접 투표하는 체육관 경선은 조직 동원과 금품선거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체육관 경선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박 지사는 이어 "최고위원회가 공심위 의견대로 지사경선의 50%를 당원투표로 결정한다면 당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 지사 측 관계자는 "주 의원은 지난 1월31일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직 사임 기자회견에서 직접 '체육관 경선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으면서, 이제 와서는 체육관 경선을 찬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20일 열린 민주당 전남도당 공직후보자심사위원회. 전남도당에서는 당원명부 조작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체육관 경선에 대한 전남지사 후보 간 언쟁이 뜨거워 지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도민 여론조사와 함께 실시하는 체육관 경선은 투표권을 가진 당원이 특정 장소에 모여 직접 투표하는 것으로 작년 6월30일 이후 당비체납이 없는 우대당원(50%)과 일반당원(50%)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단 수는 중앙당에 등록된 전남지역 우대당원 약 2천여명과 그에 준하는 일반당원 등 약 4천~5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원이 뽑는 것이 원칙"=박 지사의 이 같은 주장에 주승용 의원과 이석형 예비후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당의 후보는 그 정당의 당원이 직접 뽑는 것이 원칙"이라며 "경선방식의 유불리를 따져 소속 정당의 당원들을 금품선거에 동원되는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매도하는 박 지사의 언행은 용서받지 못할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선거인단에 의한 현장 투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후보시절 선거혁명을 불러온 획기적 제도로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박 지사가 정당 정치의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고 각을 세웠다.

도당 위원장 사임 기자회견 당시 '체육관 경선 부작용 우려'에 대한 발언과 관련해서는 "국민참여경선은 기본적인 입장이고, 당시 모바일, 인터넷 투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했을 뿐 직접 투표를 반대한 적은 없다"면서 "적은 숫자의 당원으로 투표하게 되면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고,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석형 전남도지사 예비후보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장투표가 조직동원과 돈선거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은 현실과 맞지 않는 자의적 판단"이라며 "경선 시행 세칙 등에 따라 선거인단 명부를 경선일까지 철저하게 관리하고 일반당원 선거인단을 늘리면 조직·동원 경선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경선방식에 대해 할 말이 많지만 결국 서로 한 발짝 양보하는 것이 순리"라며 "전남지사 경선에 참여한 후보자들이 중앙당의 입장과 고민을 헤아려 경선방식에 대한 신중한 처신과 입장 표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본부 조직 담당 강기정 의원은 이날 "체육관 경선 방식은 이미 공심위에서 의결된데다 최고위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변경될 가능성은 없으며, 오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시민배심원단 400명될 듯

강운태·이용섭·정동채 민주당 경선면접 통과

민주당 광주시장 최종 경선 후보자가 강운태 의원, 이용섭 의원,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 등으로 확정됐다.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21일 광주시장 후보 경선 후보자 공모에 응모한 강운태 의원, 이용섭 의원,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 등 3명의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한 후,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고 최종 경선 후보자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다음달 10일 시민공천배심원제와 당원 전수 여론조사 방식을 통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한편,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참가하는 시민공천배심원단의 규모는 '광주시민배심원 200명+타 지역 전문배심원 200명'으로 가닥이 잡혔으며 이르면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시민공천배심원단 규모는 400명으로 가닥이 잡혔으며 22일이나 23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정동채-양형일, 정동채 후보로 단일화

민주당 광주시장 정동채 예비후보와 양형일 예비후보가 정동채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했다.〈사진〉

이에 따라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은 민주당 강운태·이용섭 의원과 정동채 예비후보 등 3파전으로 압축됐다.

정 후보 측은 21일 "지난 19일과 20일 정 후보와 양 후보에 대한 일반시민 지지도 여론조사를 한 결과, 지지도가 앞선 정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정 후보는 "단일화를 이뤄준 광주시민과 양형일 후보에 감사 드린다"면서 "앞으로 두 후보가 힘을 합쳐 '창조적 문화경제도시,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후보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면서 "민주당 경선주자로서 행보를 접지만,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정치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

■ 민주 광주시장 경선 후보들 설전 왜

3파전 압축…초반 기선잡기 2中 후보 양강 구도 만들기

지난주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구도가 요동치는 가운데 후보들간 치열한 설전이 벌어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다.

박광태 광주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이용섭 의원과 전갑길 예비후보 간, 정동채·양형일 예비후보 간 후보 단일화 논의가 성사되면서 경선구도는 일찌감치 강운태 의원과 다른 두 후보 간 3파전으로 형성됐다.

후보 간 설전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 18일부터. 이날은 박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이용섭·전갑길 간 후보단일화에서 이 의원 쪽으로 단일화가 이뤄지는 등 3파전 구도의 3분의2가 완성된 날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단일화 후보도 정동채 후보가 유력하다는 것이 당시 지방정가의 일반적 관측이었으며 이는 20일 현실화됐다.

이용섭 의원은 18일 지난해 하반기 이후 여론조사 선두를 유지해온 강운태 의원을 향해 '애들 보채기 정치를 한다"고 비판했다. 정동채 후보도 "광주시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강 의원 비판에 동참했다. 이 의원과 정 후보는 다음날인 19일에도 강 의원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배포한 여론조사 문건을 문제 삼아 강 의원을 협공했다. 두 후보는 이후 강 의원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공격이 재개될 가능성은 충분한 상황이다.

두 후보가 강 의원을 집중 공격하는 것은 초반 기선 잡기용으로 해석된다.

선거전략 전문가들은 3파전의 경우 선두 후보는 1강 2중 구도, 나머지 두 후보는 자신과 함께 최강 후보를 묶는 양강구도를 만드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두 후보의 강 의원 공격은 자신을 포함한 양강구도 만들기 전략으로 풀이된다.

물론 여론조사 선두 후보 입장에서는 다른 후보의 공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조용한 정책선거를 선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강 의원은 지난 18~19일 수비만 하면서 "정책선거를 펴자"고 주장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이날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지 않을 정도의 공박과 논쟁은 경선구도를 더욱 흥미롭게 한다"며 "하지만, 절제되고 품격있는 공격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